

# 野, 언론 외압·투기 의혹 등 추가 공세 李, “대오각성” “백번사죄” 몸нат추기

## 이완구 인사청문회 불꽃 공방

### 與, “부정 없었다” 방어

여야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 언론 외압 논란,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놓고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후보자 병역 판정과 언론사 외압에 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새누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오히려 칭찬릴레이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사과에 사과를 거듭하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자는 거의 말끝마다 ‘송구’, ‘죄송’, ‘부주의’, ‘불찰’, ‘실수’, ‘잘못’ 등 표현으로 사과에 사과를 거듭했다.

◇언론 외압 논란=우선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 외압 논란과 관련, 이 후보자를 적극 연호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자는 언론인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언론자유에 침해 소지가 있어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보기 드물게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 자유를 중요시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관련 청문회 중 녹음파일을 재생하지는 야당 요구에 “윤리에 반하는 과정으로 녹취된 음성을 듣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야당 청문위원들은 국회 정문관에서 이 후보자의 1971년 첫 신체검사를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라며 “내가 (김영란 법을) 막고 있는 거 알지? 내 가만히 있으면... (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그런 이야기는 했을 리가 없다”며 부인하다가, 오후 들어선 “(당시) 대단히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해명을 반복했다.

◇병역 문제=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 후보자의 ‘1971년 첫 신체검사를 받은 흉상이 시골이아레스레이를 찍지 못했다’는 1975년 대전에서 재검을 받을 때 엑스레이가 있어서 진실대로 (보충역 판정) 됐다’는 해명에 대해 이 후보자의 병역 기록표를 근거로 들며 최초 신검 장소가 흉상이 아닌 서울 육군수도병원이었고, 75년 재검 장소는 대전이 아닌 홍성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육군수도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라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면 조그만 시골(홍성)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인가. 그런 분이 군청에서 일하며 재검을 받은 것”이라며 재검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서 60세가 넘는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 고생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신검 장소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투기 의혹=새정치연합 홍종익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초, 강남 아파트 매입 이력을 소개한 뒤 “당대 최고 투기꾼들이 옮겨다니는 아파트였고 강남에서 최고로 가격이 올랐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비버리힐스라는 (분당) 대장동 땅에 투자하는데 이걸 보면 엄청난 재테크 귀재라고 판단된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몸을 낮췄다.

◇새누리당은 칭찬 릴레이=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평소 정치하면서 닦고 싶은 지도자가 이 후보자”라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40여년 간 공직생활 과정을 파악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정, 비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뒷목잡은 총리 후보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간 최근 기자들과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음성 파일 공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가자 눈을 감은 채 뒷목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이완구 후보자 언론발언’ 녹취록

◇총장 및 교수 관련 부분=나도 야당 의원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몸을 낮췄다.  
◇새누리당은 칭찬 릴레이=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평소 정치하면서 닦고 싶은 지도자가 이 후보자”라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40여년 간 공직생활 과정을 파악한 결과 단 한 건의 부정, 비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영란법 관련=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지?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이래 살아오. 40년 된 언론으로 이렇게 살고 해. 가만히 있고 하려고 해.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아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

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왔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어 이거...지들 아파 검경에 붙어 다니면 막소리를 거야.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일어 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원 넘잖아? 가...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오게 못 먹는 거지...하자 이거야. 해 보자.

## 문재인, ‘박대통령 국민배신론’에 정면 반박

# “봉급쟁이 유리지갑 터는 일은 이중배신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중의 배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중세 복지론’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새끼를 박은데 대해 정면으로 맞받아 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쩔 지름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정치인들과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문 대표는 이어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 이는 2010년 이후 쪽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중세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담배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제 세무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중세가 아닌가”라고도 반문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거 중세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 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이라면서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공격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막아내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문재인 ‘컨벤션 효과’

# 새정치 지지율 30% 넘어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 선출의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3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과 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연합 지지도는 30.5%를 기록했으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5.2%로 집계됐다.

문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22.6%를 기록, 박원순 서울시장(12.9%),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10.4%),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7.7%) 등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다.

문 대표가 9일 대표 취임 후 첫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도 근소한 차이로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이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3.1%포인트)에서 총 응답자 1천명 중 53.5%가 참배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로 공감한다는 응답자 수의 절반을 밑돌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조영택 새정치 西乙 지역위원장 4월 보선 출마 예비후보 등록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4·29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10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1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조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축적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와 민생경제 회생, 지역 발전을 위해 공직 생애 모두를 바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교육, 말씀, 기도, 상담  
**행복한 목회현장!!**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자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심리상담사, 가정지역상담사, 도형상담사 자격 취득!!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2일 ~ 12월 중순(약 10개월)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오전 9:00-1: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